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 연구

최원희* · 성정락**

A Study on Internal Structure and Landscape of Sindoan Religious Village in Kyeryong Mountain

Wonhoe Choi* · Jeongrak Seong**

요약 :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은 종교적·역사적·장소적 특성을 현저하게 가졌었고, 다종교촌이었으므로 한국의 종교촌에서 존재 의미가 특이했고 컸다. 현재, 신도안 종교촌은 소멸되어버린 상황이고, 선행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주요 연구결과의 상이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을 1910~1980년대의 지도를 비롯한 여러 그림 자료를 통해서 원형 복원의 차원에서 파악했다.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조사한 결과, 지형, 행정지명, 마을, 기반시설, 일반기능체, 종교, 토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이 파악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의 경관은 일반경관과 종교경관으로 구분해서 파악되었다. 일반경관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이 입지해 있었던 일반촌락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기반과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기반이 잘 드러나고 있다. 종교경관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시천교, 시천교 이외 종교 및 무속 간의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의 차이,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적극적 수용,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고유성 유지 및 공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어 : 계룡산, 신도안, 신도안 종교촌, 내부구조, 일반경관, 종교경관

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d the internal structure and landscap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in Kyeryong mountain at the level of the restoration of its original form through a number of pictorial materials, including maps from the 1910 ~ 1980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in terms of topography, administrative name, village, infrastructure, general functional establishment, religion and land use. The landscap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was identified in terms of the general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general landscap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the foundation of physical and humanistic geography and the foundation of the *feng shui* and *feng shui docham* in the village are well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Sindoan religious village can be summed up by differences in religious orthodoxy and authority between *Sichonism*, religions outside of *Sichonism* and shamanism, active acceptance of the *feng shui* and *feng shui docham* characteristics in Gyeryong mountain of the new religion and shamanism, the preservation of uniqueness of the new religion and shamanism and the coexistence of the two.

Key Words : Kyeryong mountain (Kyeryongsan, 鷄龍山), Sindoan (新都內), Sindoan religious village, Internal structure, General landscape, Religious landscape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jrsung@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자료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鷄龍山 新都內 宗教村, 이하에 서는 ‘신도안 종교촌’이라 약칭함)은 종교적 특성은 물론 역사적 특성 및 장소적 특성을 현저하게 가졌었고, 거기에다 거의 유일한 다종교촌(多宗教村)이었으므로 한국의 종교촌에서 존재 의의가 특이했고 컸다. 현재, 신도안 종교촌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소멸되어버린 상황이고, 그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자료 자체가 많지 않고, 특정 연구 대상에 관한 개별 자료들의 접근 방법 및 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산재하는 기존의 파편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신도안 종교촌의 원형을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內部構造), 경관(景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원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그러나,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의 내용을 한 개 논문에서 전부 다루는 것은 개관적 차원이라도 방대한 작업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의 내용을 ‘변천 및 종교구성’과 ‘내부구조 및 경관’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연구하기로 계획하고, 본 연구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기존의 문헌, 지도, 사진·삽화·스케치 등의 비지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지역의 개관

신도안 종교촌 연구는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기원과 관련한 특이한 장소성·역사성·사회성, 다종교촌적 특성, 미존재성 등으로 인해 한국 종교촌 연구에서 특수한 위상을 갖고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서적 형태 연구로는 村山智順(1931; 1935), 善生永助(1933), 이경호(1964), 김덕중(1984),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2; 1993; 1999), 한홍수(1993), 논산근지편찬위원회(1994), 충청남도(1994; 1997), 이길구(1996; 1997; 2001a; 2001b; 2009), 구중희(2001), 류제현(2002), 정중수·서현강(2003), 계룡시(2005), 논산시지편찬위원회(2005), 계룡면지편찬위원회(2006), 국립공주박물관(2007), 두마면지편찬위원회(200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2010a; 2010b), 공주시·공주학연구원(2015),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해 개관적 기술 또는 부분적 기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간행 연구들은 신도안 종교촌의 초기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의 내용에 왜곡이나 관점의 오류가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논문 형태 연구로는 李覺鍾(1924), 장철수(1976a; 1976b), 주경식(1984), 최창조(1984), 이영숙(2000), Ryu(2005), 최원희 등(2018)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또한 서적 연구의 경우와 같이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을 개관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한 구체적·미시적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서적 형태이든 논문 형태이든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내부구조와 관련해서 일반 및 종교 기능체의 입지에 관해 연구자 간에 연구결과의 내역에서 차이가 크고, 그리고 경관의 경우 지도, 사진 등의 원자료 자체가 매우 희소하여 이들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신도안 종교촌은 인문지리적으로는 대체로 주요 기둥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종교기능체가 집중적으로 입지해 있었던 부남리·석계리·용동리·정장리 일대에 입지해 있었으며, 자연지리적으로는 신도안분지와 그 주변의 산지사면에 입지해 있었다. 신도안 종교촌은 1950년대 이래 1970년대 전반까지 번성하다가 1970년대 중·후반에는 무속과 일부 신흥종교의 부정적 측면이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연계되어 증폭되면서 당국의 각종 제재에 직면했고, 1984년에는 정부의 6·20사업에 의거하여 폐쇄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II.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본 장에서는 1910-1980년대의 그림 자료에 나타난 ‘신도안 종교촌 내부구조’의 특성을 조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신도안 종교촌 내부구조를 지도 자료를 통해서 1910년대,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시대별로 개관하고, 사진·삽화·스케치 등의 비지도 자료를 통해서 지형, 행정지명, 일반기능체, 기반시설, 종교 및 토지이용의 주제별로 개관함으로써 지도 자료를 통한 내부구조 파악의 결과와 비지도 자료를 통한 내부구조 파악의 결과를 상호 보완하고자 한다.

1. 지도 자료에 나타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 1918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논산·대전 도폭(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論山·大田 圖幅)」(朝鮮總督府, 1918)¹⁾을 통해서 '1918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보면, 당시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지도가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시기로 추정되는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²⁾ 이후인 1918년에 제작되었으므로 지도에는 신도안 종교촌 발생 시기의 내부구조가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도 자체가 사실상 한국 최초의 1:50,000 지형도이어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가 최초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도에는 1910년대의 신도안 종교촌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지형, 토지이용, 신도안의 한자 지명, 군·면·리 행정구역 경계 및 명칭, 마을의 위치 및 명칭, 종교의 위치 및 명칭 등이 잘 나타

나고 있다. 부연하면, 지도에는 '신도안'의 한자 표기가 '新都內'가 아닌 '新都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도안 지명이 근대적 지형도에 표기된 최초의 사례로 추정된다. 1918년 당시 신도안 종교촌이 행정구역상으로 논산군(論山郡) 두마면(豆磨面)의 부남리(夫南里), 석계리(石溪里), 용동리(龍洞里), 정장리(丁壯里) 등의 법정리 및 대전군(大田郡) 진잠면(鎭岑面)의 남선리(南仙里) 등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일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종교로는 시천교 산하의 시천교지부(侍天教支部)와 시천교회당(侍天教會堂)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가 공식 지도에 표기된 최초의 사례이다.

2) 1977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50,000 지형도: 대전 도폭'(국립지리원, 1979) 및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국립지리원, 1981)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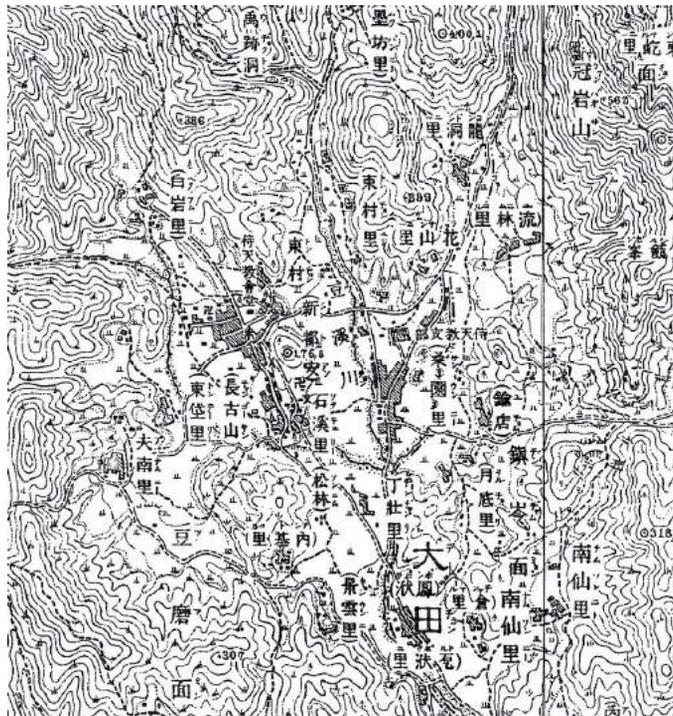


그림 1.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18년)

출처 : 朝鮮總督府, 1918.

* 위 지도 중 논산 도폭(신도안이 온전히 전부 나오는 부분, 지도 우측에 상하로 그어 있는 선의 좌측 부분)은 善生永助(1933:254)의 저술에도 게재되어 있음. 1:50,000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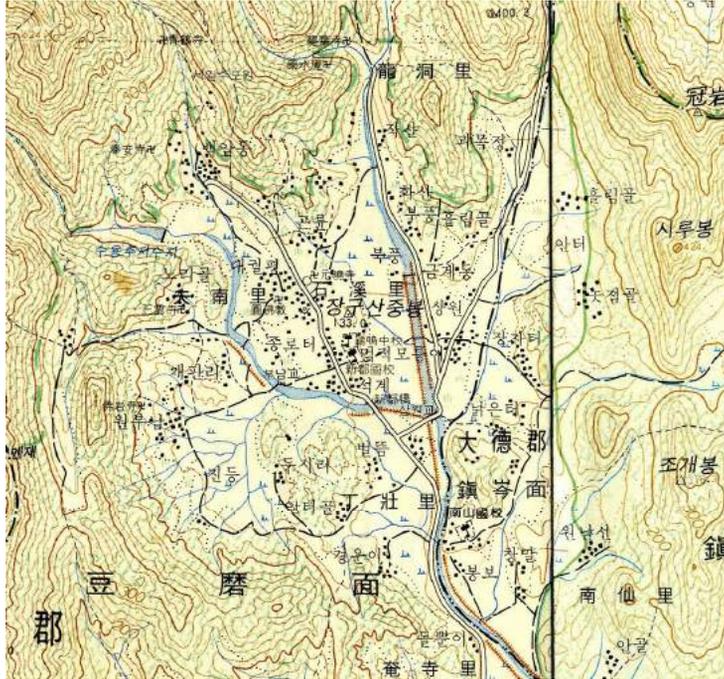


그림 2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77년)

출처 : 국립지리원, 1979; 1981.

* 위 지도는 모두 1977년 편집본이며, 1:50,000 지형도.

서 '1977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기본적인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984년에 6·20사업으로 마을, 일반 기능체, 기반시설, 종교 등이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7년은 신도안 종교촌의 전성기 중의 한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지도에는 신도안 종교촌 전성기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소축적인 1:50,000 지형도이어서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가 적지 않게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1977년 당시 신도안 종교촌이 행정구역상으로 논산군 두마면의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등의 법정리 및 대덕군 진잠면의 남선리 등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일대(대결평, 종로터, 석계, 금계동, 백암동, 원부남 및 상원 일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법정리는 행정리로 분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로는 청학사(靑鶴寺), 용화사(龍華寺), 약수암

(藥水庵), 불암사(佛岩寺) 등 9개가 나타나고 있다.

3) 1984년 폐쇄 직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5,000 지형도: 공주 080 도폭」(국립지리원, 1996b)을 통해서 '1984년 폐쇄 직전의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매우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도에는 산봉과 하천의 미세한 형태는 물론 도로망, 농지 경계, 건물의 윤곽, 토지이용 유형 등이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고, 마을 명칭, 기능체 명칭 등이 다수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곳곳에 해발고도가 표기되어 있으며, 다수의 종교가 개별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특히, 지도의 좌측에는 신도안 종교촌의 핵심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결평, 신도내시장, 신도내출장소, 신도내우체국, 협동도정공장 및 종로터로 이어지는 일대가 그곳이다. 종교로는 무량천도(無量天道), 동학중단협의회, 천진전(天真殿), 세계일가공회(世界一家公會), 천진교기도원(天真敎祈禱院) 등 25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84년 폐쇄 직전)

출처 : 국립지리원, 1996b.

* 위 지도는 1984년에 편집되고 1994년에 수정된 것이며, 1:5,000 지형도.

4) 1986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84년에 6·20사업으로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된 직후에 제작된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국립지리원, 1986)을 통해서 '1986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기본적인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984년에 6·20사업으로 철거된 마을, 일반기능체 및 종교 중 일부의 형태와 대부분의 명칭은 삭제되지 않고 기존대로 남겨놓고 있다. 부연하면, 지도에는 1984년에 6·20사업으로 신도안 일대 마을의 가옥을 포함한 건물이 전부 철거되어 개별 가옥을 비롯한 마을 표시는 거의 없으나, 기존의 마을 명칭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 놓고 있다. 또한, 1984년에 6·20사업으로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와 일반기능체는 전부 철거되었으나, 지도에 일부의 건물 형태와 대부분의 명칭은 기존대로 표시되어 있다. 요컨대, 지도에는 1984년 6·20사업 직후 신도안 종교촌의 인문지리적 혼란상태

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당시 신도안 종교촌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논산군 두마면의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등의 법정리 및 대덕군 진잠면의 일부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4년에 신도안 종교촌이 사실상 폐쇄되었으므로 오류이기는 하나, 신도안 종교촌에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일대(대필평, 종로터, 석계, 원부남, 금계동, 백암동 및 상원 일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로는 세일수도원, 정도교교회, 천진교(天真教), 불암사(佛岩寺) 등 11개가 나타나고 있다.

2 비지도 자료에 나타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 1929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29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이길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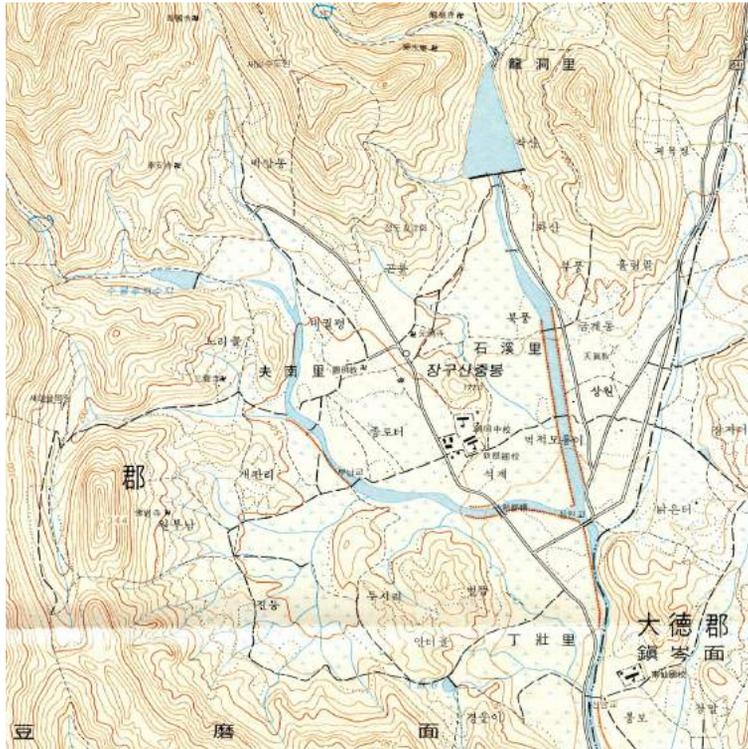


그림 4.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86년)

출처 : 국립지리원, 1986.

* 지도는 1972년 편집본, 1986년 수정본이며, 1:25,000 지형도.

뒷표지 안부록;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정중수, 2008:298)을 통해서 보면, 당시 신도안 일대의 주요한 자연 및 인문 경관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산지 사면의 형태, 건물의 윤곽, 개별 가옥의 표시, 하천의 유로, 도로망 등이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림은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논산·대전 도폭」(朝鮮總督府, 1918)의 신도안 종교촌 그림보다 10여 년 이후의 것이지만, 192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당시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거의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신도안 종교촌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의 기반이 되는 지형으로서의 상봉, 중봉, 신봉 등의 산봉, 석계천, 용동천 등의 하천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서너 개의 법정리에 걸쳐 20여 개의 마을들이 입지해 있고, 문, 보, 송림 등의 기반시설과 시장, 학교, 주재소 등의 기능체가 입지해 있어서 취락으로서의 신도안 종교촌이 1920년에 이미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었음이 드러

나고 있다. 이는 상제교(上帝敎) 등 종교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한 1900~1910년대가 막 지난 1920년대인데도 이미 삼신당(三神堂), 상제교·상제교숙실(上帝敎宿室)·상제교전교당(上帝敎傳敎堂), 칠성교(七星敎), 단군교(檀君敎), 동학교(東學敎), 태화교(太華敎) 등 10여 개의 종교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2) 1964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64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나타낸 그림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도안 종교촌의 영역, 지형, 행정구역, 취락, 토지이용 등을 나타낸 그림(이경호, 1964:앞부록)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분포를 나타낸 그림(이경호, 1964:29-32)이다.

우선, 1964년 신도안 종교촌의 영역, 지형, 행정구역, 취락, 토지이용 등을 나타낸 그림을 보면, 그림 안에 신도안의 영역(領域)이 굵은 곡선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산지의 분포와 해발고도, 하천의 유로, 군의 경계,



그림 5.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29년)

출처 : 이길구, 1996: 뒷표지 안부록;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정중수, 2008:298.

* 위 그림은 '계룡산 신도안 상세도' 원본의 일부로서 좌측 하단부에 1929년에 이내인(李乃彦, 논산군 두마면 정장리 109번지)이 저작·발행하고, 당시 경성(경성부 수송동 27번지)에서 인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군리의 행정구역 명칭, 취락(마을, 빗금 표시)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는 당시 이 일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도안의 영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는 '신도안'의 한자 표기를 '新都安'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신도안분지의 고도와 논의 분포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신도안분지의 소하천 연변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로, 하천, 건물대지 등을 제외하면, 그 주변의 평탄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 그림은 신도안 종교촌 핵심부의 내부구조를 현지조사에 의해 잘 나타낸 사례이다.

1964년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분포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천황봉을 비롯한 그 좌우 인근의 산지, 산지 아래

의 신도안분지, 신도안분지의 석계천, 용동천 등의 하천이 나타나 있고, 종로터에서 대궐터·신도내시장으로 연결되는 종로통이 나타나 있는 가운데 당시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에 58개의 종교(출처 원본에서는 '종파'라 칭함)가 분포해 있었다.

1964년 당시 신도안 종교촌의 58개 종교 중 18개가 유사종교계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교계통 35개, 기독교계통 3개, 천주교계통 1개 및 선교계통 1개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유사종교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계통의 종교는 비유사종교로 추정되기도 하고, 신흥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신흥종교로 추정된다. 1964년 당시 신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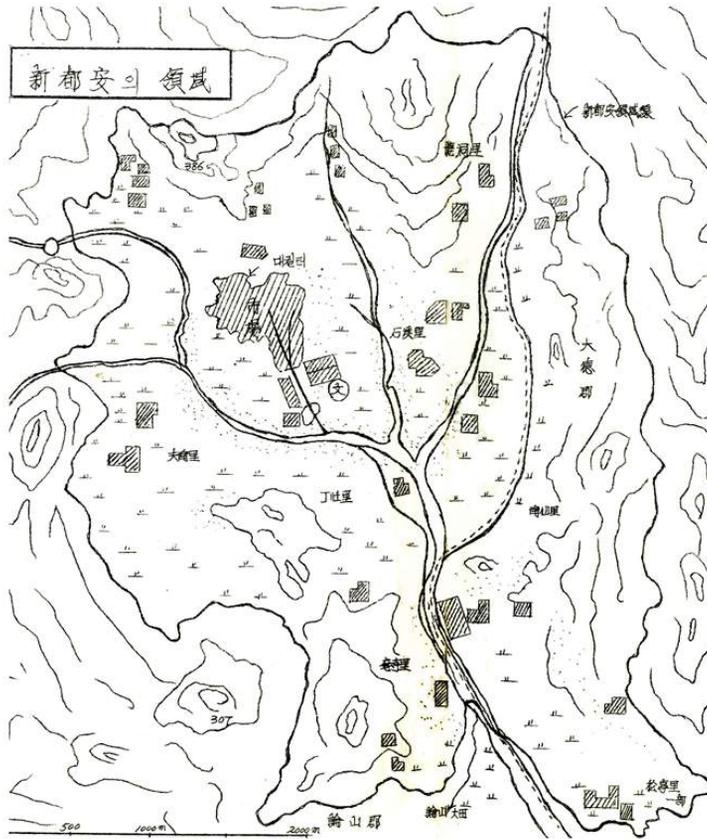


그림 6.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64년)

출처 : 이경호, 1964:앞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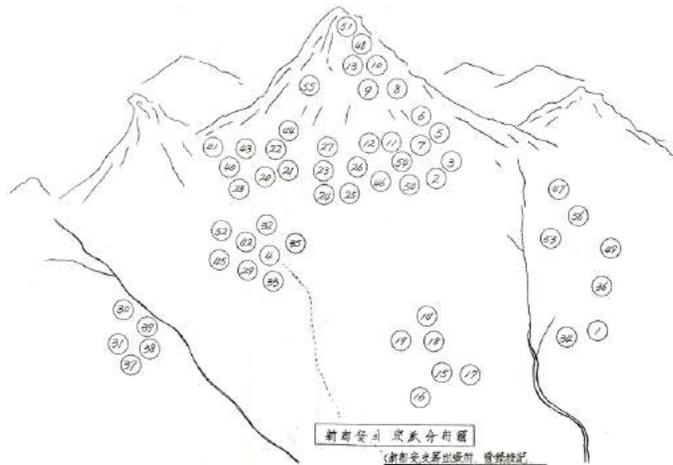


그림 7.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분포도(1964년)

출처 : 이경호, 1964:29-32.

* 출처에서 그림은 “신도안, 지서, 출장소, 등록이기”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그림의 번호별 종교명칭은 최원희·이근화(2019)의 표 2를 참조 바람.

종교촌에 분포했던 종교들은 상당수가 신도안의 주봉인 천황봉(상봉)의 사면과 기슭 일대에 분포해 있었고, 나머지는 분지내의 풍수지리적 명당인 대궐터, 금계동, 원부남, 정장리, 용동리 일대에 분포해 있었다. 그림에는 천진교, 내봉암(來鳳庵), 용화사(龍華寺) 등 58개 종교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다.

3) 1965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65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41)을 통해서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종교분포를 중심으로 간결히 나타내고 있다. 즉, 종교분포와 관련된 핵심적 지형으로서 상봉(上峯, 828m)을 드러내고 있고, 종교분포와 관련해서 대궐터, 안터골, 벌뜸 및 우적골과 같은 주요 마을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종교분포를 부남리, 용동리, 석계리

및 정장리의 행정구역별로도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 신도안 종교촌의 주요 학교인 계명중(鷄鳴中) 및 신도국민교(新都國民校)도 나타나고 있다. 계룡사(鷄龍寺), 청학사(靑鶴寺), 백광사(白光寺), 산신각(山神閣) 등 34개 종교의 분포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970년초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70년초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이길구, 1996:114-115; 1997:116-117)을 통해서 보면, 천황봉 등의 산지,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하천, 중봉산(中峰山, 176.5m), 신탈이봉 등의 소구릉과 같은 지형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대궐터, 종로터 등의 주요 취락, 신도내시장, 신도초등학교, 계명중학교, 신도내출장소, 신도내우체국 등의 주요 기능체, 종로동 등의 도로망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종교는 천황봉을 비롯한 인



그림 8.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65년)

출처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41.

* 붕어명당에 '광자치료(狂者治療)'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위 자료의 원전은 1965년 3월 8일자 경향신문의 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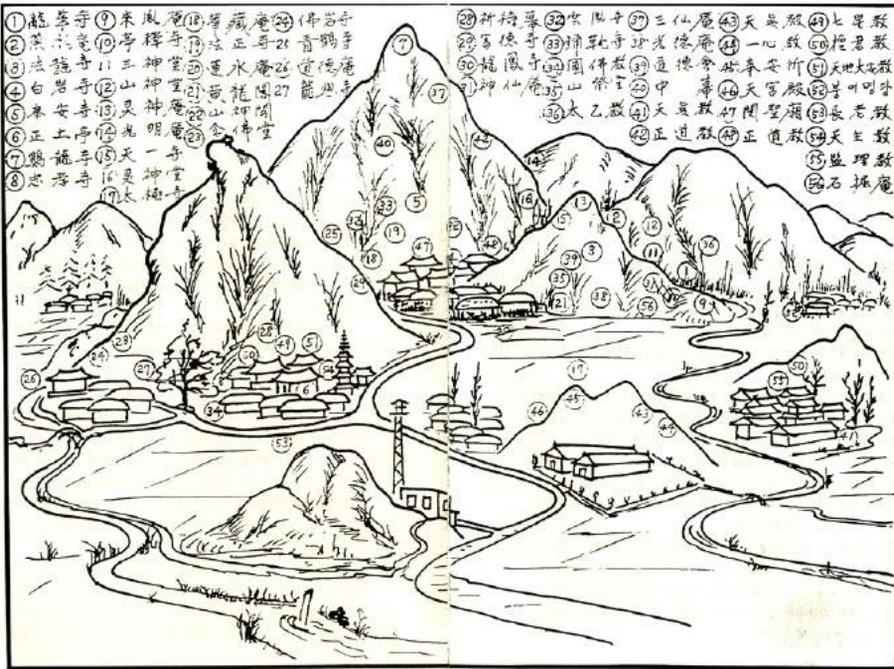


그림 9.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70년초)

출처 : 이길구, 1996:114-115; 1997:116-117.

* 위 그림에서 ⑦번 종파가 있는 산봉이 '천황봉'임. 그림의 번호별 종교명칭의 정확한 표기는 최원희·이근화(2019)의 표 2를 참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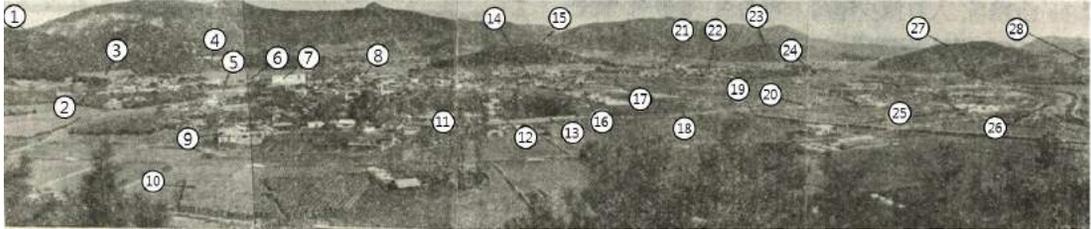


그림 10.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83년)

출처 : 주경식, 1984:77.

* 출처의 그림은 1983년 12월 16일 출처의 필자가 촬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림 안의 26개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 등의 상세 내역은 원전에 표기되어 있음.

근 좌우 산지의 사면과 기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일부는 대궐터, 중봉 일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은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분포를 나타낸 자료들 중 지도 자료를 제외하면 종교분포를 해당 위치에 가장 정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는 용화사(龍化寺), 법룡사(法龍寺) 등 56개 종교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다.

5) 1983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83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주경식, 1984:

77)을 통해서 보면, 당시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림에 나타난 주요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분야별로 보면, 지형으로는 신도안에서 동학사로 통하는 고개, 중봉(179.5m), 장구산, 인경봉, 석계천, 잠두봉(185.4m)이 나타나고, 행정지명으로는 석계리가 나타나고 있다. 기반시설로는 이태조가 구상했던 종로, 돌담, 종로에서 시장으로 갈라지는 도로, 양호하게 경지정리가 된 논, 콘크리트로 된 농업용도수로 등이 나타나고, 일반기능체로는 대나무과수원, 1982년

에 완성된 저수지, 마을회관, 농협창고, 1979년 유사종교 정리 이후에 지은 집, 이주자들이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입한 인삼밭, 1·6일장, 신도안출장소, 우체국, 계명종교, 신도국교, 비닐하우스 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종교로는 동학교당, 원불교당, 천진교당, 정신이상자를 수용한 기도원 등 4개만 표시되어 있다.

6) 1984년 이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84년 이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3:4-5)을 통해서 보면, 두 개의 그림 중 아래의 그림은 최석배(崔錫培)가 1991년 봄에 자신의 고향 신도안을 잊지 못하여 옛 생각을 더듬어 그린 몽중비감도(夢中飛鑑圖)로, 신도안 종교촌이 철거된 1984년 이전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이 그렸으므로 사실성과 실제성이 매우 크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림에 지형으로는 천황봉을 비롯한 주요한 배후 산봉들, 중봉산, 잠두봉 등의 신도안분지

내의 산봉들, 석계천, 용동천 및 두계천과 같은 신도안분지 내의 하천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로는 대궐터(대궐평), 종로터, 원부남, 벌뜸, 금계동 등이, 기반시설로는 용동저수지, 종로통 등이, 그리고 일반기능체로는 신도내시장(부남리시장), 계명중학교, 신도초등학교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1984년 폐쇄 직전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1984년 폐쇄 직전으로 추정되는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그림(계룡시, 2005:674)을 통해서 보면, 1984년 폐쇄 직전으로 추정되는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가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계룡산상봉을 비롯한 주요 산봉, 수충추 등의 구혈, 지명이 표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석계천, 용동천 및 두계천 등의 하천 지형이 나타나 있고, 도로망이 잘 나타나 있으며, 종로터, 정장, 금계, 벌뜸 등의 마을이 나타나 있다. 이외에 신도중학, 신도국민교, 남선국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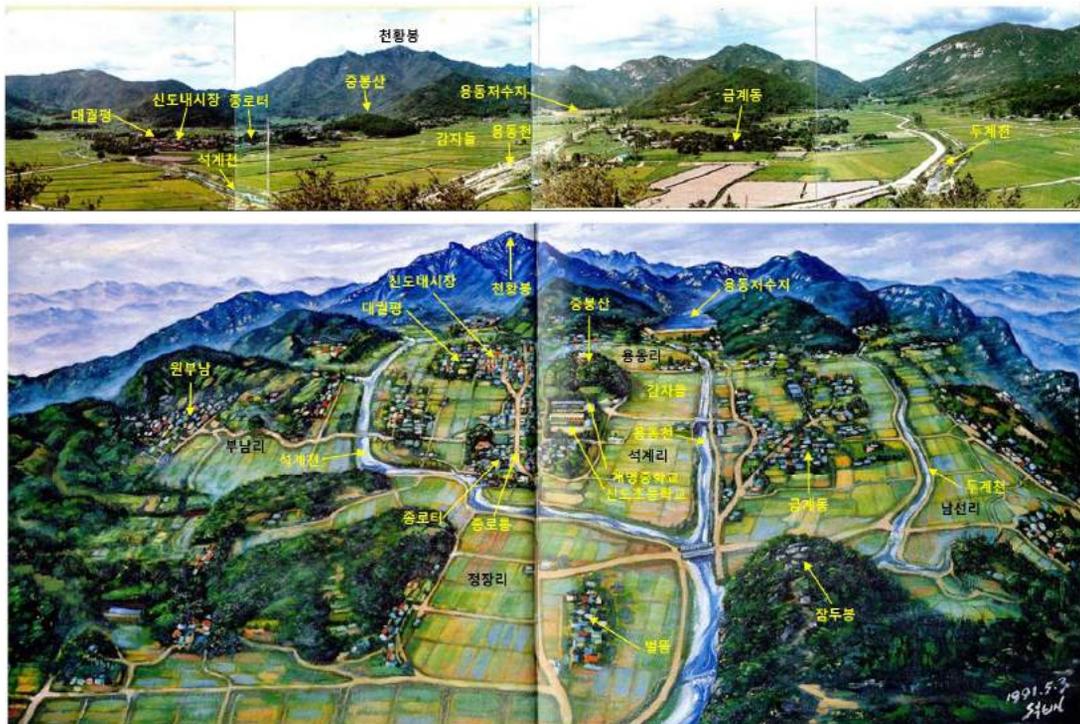


그림 11.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84년 이전)

출처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4-5.

* 위 그림의 지명 및 기능체 명칭의 표기는 본연구자가 출처 원본에 추가한 것임. 위 그림은 1983년 6월 촬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일한 시점(視點)의 유사 자료가 없어서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의 정확성을 유추하기 위해 함께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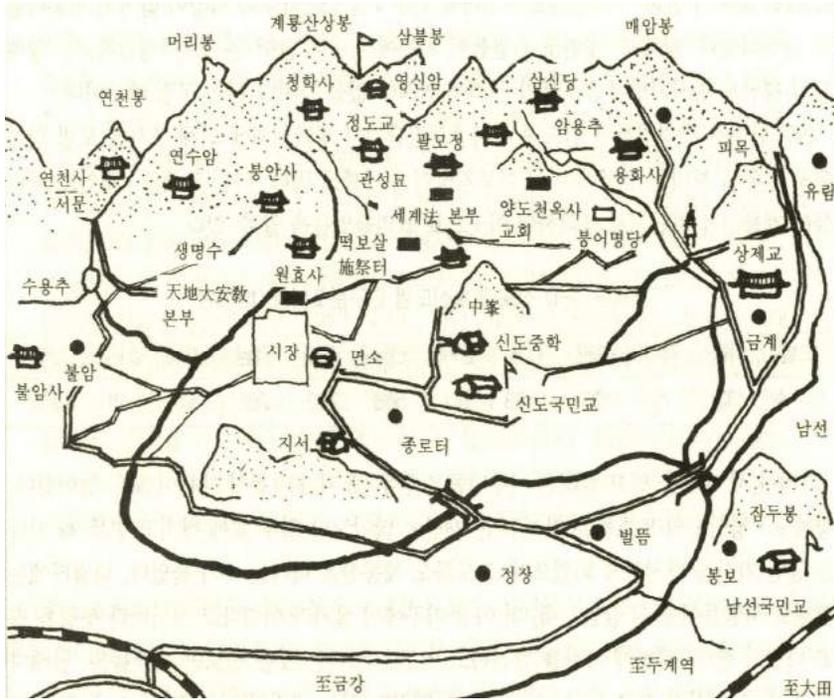


그림 12.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1984년 폐쇄 직전)

출처 : 계룡시, 2005:674.

등의 학교와 지서, 면소 등의 관공서가 나타나 있다. 떡보살시제터, 원효사, 상제교 등의 종교가 나타나 있다.

III. 신도안 종교촌의 경관

종교촌은 자연환경에 기반한 일반적 취락의 배경에서 성지(聖地)이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종교취락은 도로, 저수지, 농경지, 관공서, 상점, 시장, 학교, 가옥 등과 같은 일반시설 이외에, 기도시설, 상징조형물, 종교교육시설, 신도거주시설 등의 종교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증산교촌(甞山敎村), 정감록촌(鄭鑑錄村) 등과 같은 단일종교촌인 경우 일반시설과 종교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한 반면, 신도안 종교촌과 같은 다종교촌의 경우 일반시설과 종교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하다. 이러한 종교촌의 경관은 일반시설로 구성된 일반경관과 종교시설로 구성된 종교경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종교경관은 넓게 보면, 단순히 종교시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종교시설 입지의 예배소, 제단, 탑 등에 특정종교의 이념, 사상, 계율, 세계관 등이 새겨지거나 박혀져 있으며, 특정종교의 발생 요인 및 과정, 역사적 및 장소적 배경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경관은 거시적으로는 문화경관의 한 유형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신성경관(神聖景觀)이다(임덕순, 1990:116-117). 본장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경관 특성을 일반경관과 종교경관으로 구분해서 조사·기술하고자 한다.

1. 신도안 종교촌의 일반경관

1) 신도안 종교촌의 전체 및 핵심부 경관

신도안 종교촌은 일반적 촌락으로서의 마을 내외에 입지해 있었는데, 마을은 '신도안분지 내 평지와 소구릉지 사면' 및 '천황봉과 그 좌우의 배후산지 사면'에 주로 입지해 있었다. 배후산지의 가운데에 가장 높은 '천황봉'이 있었고, 분지의 좌측에 솟음추에서 흘러나오는 '석계

천'과 우측에 암용추에서 흘러나오는 '용동천'이 있었다. 두 하천 사이의 분지 한가운데에 소구릉인 '중봉'이 있었고, 석계천과 중봉 사이에 신도안 종교촌의 핵심부가 있었다. 핵심부 중 대궐터·신도내시장·종로통·종로터의 대궐터·종로통 일대는 조선초 태조 이성계의 신도 경영의 유적지로서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요인의 하나이며, 신도안 종교촌의 역사적 중핵지(歷史的 中核地)에 해당된다.

신도안 종교촌의 마을은 분지 내 평지의 경우 범람원 충적지 일대에서 괴촌상 집촌(塊村狀 集村)을 이루고 있었고, 일부는 고립된 독립가옥(獨立家屋)이나 소촌(小村) 형태의 산촌(散村)을 이루고 있었다. 배후산지 사면의 경우 배산임수의 골 또는 중위사면(中位斜面)에서 독립가옥이나 규모가 다소 큰 소촌을 이루고 있었고, 분지 내의 소구릉지 사면의 경우 독립가옥이나 소촌을 이루고 있었다. 평지 입지의 경우 집촌이든 산촌이든 주로 벼농사에 종사했으나, 소규모의 밭농사도 겸하고 있었다. 신도안 종교촌의 마을 중 사면 입지의 경우 주로 밭농사에 종사했으나, 소규모의 과수농사와 원격의 범람원 충적지에서서의 논농사도 겸하고 있었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분지 내 평지에 입지한 괴촌상 집촌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도로가 직선상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개량가옥도 있었다(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34-35, 150-151).

신도안 종교촌의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넓게는 부남,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남선리 및 송정리 일부에 입지해 있었으며, 좁게는 부남리, 석계리 및 용동리 일대에 주로 입지해 있었는데, 주요 마을로는 부남리 대궐터, 석계리 종로터, 부남리 백암동, 남선리 원남선리, 정장리 별뚝, 용동리 상원, 석계리 생진말, 부남리 두실이, 석계리 고논 등이 있었다. 대궐터와 종로터는 신도안 종교촌의 주요부에 입지한 마을이었다. 별뚝은 예로부터 난리 피난지로 알려져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형성되었다. 상원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집촌으로 용동천 우측의 금계동(金鷄洞) 옆에 있으며, 뽕나무밭(桑園)이 많았다. 생진말과 두실이는 배산임수 입지에 형성된 괴촌상 집촌으로서 전형적 미작촌이었다. 고논은 '고논'이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마을로, 천황봉 아래 대궐터 동북쪽에 있었으며, 조선 초기부터 이곳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졌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4-44; 윤용혁, 2009:118). 대궐터는 신도안 종교촌 발생원 중의 한 곳이었으며, 백암동은 신도안 종교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소규모 종교촌이었다. 종로터는 대궐터 옆의 신도내시장과 더불어 신도안 종교촌의 2대 상업적 핵심부의 하나였다.

2) 신도안 종교촌의 세부 경관

신도안 종교촌에는 각종 기반시설 및 기능체가 입지



그림 13. 신도안 종교촌의 핵심부 경관(1983년 철거 직전)

출처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150-151.

* 촌락 배후의 가장 우측 큰 산지가 천황봉이고, 촌락 좌측 전면의 하천은 석계천임. 촌락 좌측에서부터 대궐터, 신도내시장, 종로통, 종로터 등으로 구성된 신도안 종교촌 핵심부가 입지해 있으며, 분지내 우측 소구릉은 계룡산 풍수지리에서 용의 여의주로 불리는 중봉임. 중봉은 6·20사업의 과정에서도 보존되었음.



① 부남리 대궐터 마을(1953년)



② 부남리 솟음추저수지(1973년)

그림 14. 신도안 종교촌의 마을과 저수지

출처 : ① 윤용혁, 2009:118;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7.



① 부남리의 신도내시장(1920년대)



② 부남리 신도내시장의 장옥(1976년)



③ 부남리 신도내시장의 우시장(1976년)

그림 15. 신도안 종교촌의 시장

출처 : ① 충청남도, 1999:62;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5; ③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5.

해 있었는데, 특히 부남리의 신도내시장 일대와 석계리의 종로통 일대에 관공서, 학교 및 상업적 기능체가 입지해 있어 핵심부를 이루고 있었으며, 핵심부 주변에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신도내시장에는 1·6일 오일장

과 우시장이 있어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많은 장옥(場屋)들이 입지해 있었고, 종로통에는 가촌(街村)이 형성되어 도로 연변에 장옥들이 늘어서 있었다. 중봉 아래 종로통 우측의 석계리 일대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다.



① 석계리부남리의 종로통(1920년대)



② 부남2구 신도내장터의 신도안 옛공장(1965년)

그림 16. 신도안 종교촌의 가촌·공장

출처 : ① 충청남도, 1999:29;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7.

* ② 굽뚝 있는 곳이 신도안 옛공장임.



① 호남선 신도역 개역식(1969년)



② 신도안-대전역 간 시내버스 개통(1980년)

그림 17. 신도안 종교촌의 교통수단

출처 : ①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45.

부남리와 용동리에 저수지가 있었으며, 마을마다 상수원으로 공동우물이 있었고, 개별 가옥에 우물이 있었다. 부남리 및 석계리 일대에 출장소, 지서, 우체국, 농협 등의 관공서가 있었고, 대부분의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었다. 석계리에 도정공장(搗精工場)이 있었고, 부남리에 옛공장이 있었다. 신도안 종교촌 바로 아래에 호남선의 신도역(新都驛)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신도안-대전역 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었다. 석계리 등지에 보육원, 어린이집, 국민학교, 중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4-47).

신도안 종교촌에서 특정 종교의 건물 형태 종교시설들 중 일부는 분지 내 평지에서 괴촌상 집촌에 혼재해 있거나 독립가옥이나 소촌의 형태로 입지해 있었으며, 일부는 산지 사면에서 특정 종교 전유의 독립가옥이나 소촌의 형태로 입지해 있었다. 특정 종교의 종교시설은

분지 내 평지에 입지해 있던 산지 사면에 입지해 있던, 그리고 괴촌상 집촌에 혼재해 있던 독립가옥이나 소촌의 형태로 입지해 있던 대개 특정 종교 고유의 교리를 반영한 외관을 취하고 있었다. 특정 종교의 교직자들과 신도들의 거주가옥은 종교시설 입지에 근접해서 입지해 있거나 원격해서 입지해 있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69-91).

2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경관

신도안 종교촌의 개별적 종교경관은 '시천교의 경관'과 '시천교 이외의 경관'으로 구분해서 개관할 수 있는데, 이는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경관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시천교의 위상이 높기 때문이다. 신도안의 종교경관에서 시천교의 위상이 높은 것은, 첫째로 시천교는 신도안

에 최초로 유입한 종교였다는 점, 둘째로 시천교는 신도안에서 넓게는 계룡산 천황봉(天凰峰) 아래에, 좁게는 대궐터 인근, 중봉(中峰), 금계동 일대에 본당·본부, 지부, 전교실(傳教室), 숙실(宿室), 별장 등의 종교시설들을 설치했다는 점, 셋째로 시천교는 신도안에 유입하자마자 신도안의 주봉(상봉, 천황봉)인 상제봉의 이름을 따서 종교명을 아예 상제교로 개칭했다는 점, 즉, 시천교는 계룡산과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안 종교촌 일대에는 시천교를 비롯한 다수의 신흥종교들 이외에 종교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무속’이 곳곳에 신당이나 기도처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속은 순수한 무속에서부터 유사종교화된 무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에, 여기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경관을 시천교의 경관, 시천교 이외의 경관 및 무속 경관으로 구분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1) 시천교의 경관

(1)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 경위

시천교의 전신은 천도교(天道敎)였고, 천도교의 기반은 동학(東學)이었다. 동학이 “천도교→시천교→상제교→천진교”의 순서로 변천했다(朝鮮總督府, 1918; 이길구, 1996:102-111; 이홍직 편, 2009:609). 시천교는 동학계통 신흥종교로서 신도안 유입 경위는 시기와 주도자들이 상이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1903~1904년경에 시천교(금파(金派))의 황해도 출신교도 30호가 신도내로 이주했고, 1912년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출신 홍순옥(洪淳玉) 등의 사람들이 이주했고, 1913년 전교소(傳敎所)를 설치했고, 1915년 이원화(李源化)가 전교사(傳敎師)로 함께 포교에 노력하며 거주했다. 이후, 1919년에 황해·평안·경북지방의 교도들이 이주하면서 종래의 전교소가 협소하여 신도내 석계리의 이태조궁성에정지로 불리는 부지에 조선식 와즙(瓦葺)의 전당(殿堂) 건립이 추진되어 1920년에 교주 김연국(金演局)이 온 가운데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했고, 1922년에는 김연국의 별장이 조선식 가옥으로 건축됐다. 시천교는 이러한 시설들의 건립과정에서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도, 1921년에는 신도내 용동리에 시천교종학강습소(侍天敎宗學講習所)가 건립되었고, 같은 해에 유신학교(維新學校)가 4

백평의 부지에 일본식 목조평옥으로 지어져 150명의 자제가 공부했으나, 교원수당 등이 충분치 못해 곤란을 겪었다”(李覺鍾, 1924:126-127)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12년에 김연국의 지도 아래 2천5백 명의 교인이 신도안으로 들어와서 ‘상제의 명(命)’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상제교로 개칭하면서 상제봉 아래 용동리에 자리 잡아 교당을 설치하고 교세를 확장하고자 했고, 상제교는 교세 확장을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교육사업에 전념하고자 사립 신도학교(新都學校)를 세웠다”(이길구, 1996:111; 1997:113;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는 것이다.³⁾

(2)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 후 변천

시천교는 상제교 개칭 이후, 1961년에 4대 교주 김덕경(金德卿)이 천진교로 개명하여 또 다시 확장을 시도했으나, 결국 광대한 토지와 재산의 권위도 흩어지고 교도도 옛날과 판이하여 신도가 격감하였다. 여기에서, 1965년 상제봉 밑에 웅대한 콘크리트식 교단 건축을 착수하다 경제적 파탄을 일으켜 한때 교주 김덕경이 자취를 감추어야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0). 천진교는 1983~1984년間に 시행된 6·20사업으로 철거되면서 교세가 약화되었다. 신도안에서 시천교 관련 시설들의 분포를 보면, 1920년대에 신도안 용동리에 ‘시천교주 김연국의 별장’이, 신도안 금파에 ‘시천교실본당(侍天敎室本堂)’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81). 그리고 1930년대에 신도안 석교리에 ‘상제교본부’가 있었고(村山智順, 1935:附寫眞 16; 1935:附寫眞 6), 1960년대 이후 신도안에 ‘천진교총본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길구, 1996:14).

시천교 경관 관련 시기별 그림 자료를 통해 시천교 관련 시설들의 분포를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918년 이전에 신도안에 ‘시천교 지부’와 ‘시천교회당’이 있었는데, 시천교 지부는 용동천의 우측이면서 상원리 바로 위에 있었고, 시천교회당은 신도안 대궐터 위이면서 동촌 바로 좌측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朝鮮總督府, 1918). 1929년에 상제교, 상제교전교실 및 상제교숙실이 있었는데, 상제교는 ‘상제교 본부’로 추정되는데, 용동천과 두계천 사이이면서 궐대의 동남쪽 외곽에 있으면서 문루와 담장으로 둘러싸인 가장 대규모의 단일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제교숙실은 상제교의 바로 좌상부에 소규모 단일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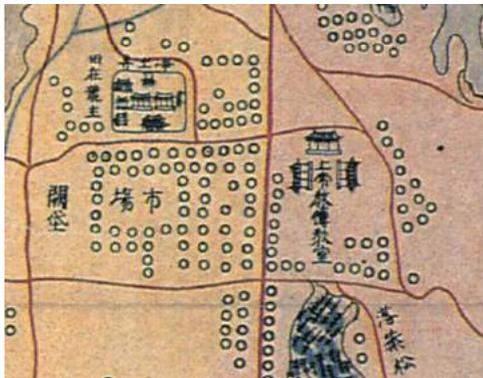
① 신도안 금파시천교실 본당



② 신도안 용동리 시천교주 김연국의 별장

그림 18. 시천교의 경관(1920년대)

출처 : ① ②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81.



① 상제교전교실



② 상제교숙실 및 상제교

그림 19. 신도안의 상제교 시설 분포(1929년)

출처 : ① ② 이길구, 1996:뒷표지 안부록; 정중수, 2008:298;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 이내언(李乃彦)이 1929년에 제작한 '계룡산 신도안 상세도' 원본에서 발췌한 것임.

제교전교실은 석계천과 용동천 사이의 신도안 핵심부에 있는 꺾대의 바로 우측에 있으면서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길구, 1996:뒷표지 안부록;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정중수, 2008:298).

1976년에 천진교가 용동천 우측의 금계동과 상원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립지리원, 1977). 1986년에 1976년과 마찬가지로 천진교가 용동천 우측의 금계동과 상원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국립지리원, 1986), 이는 지도 인쇄가 1986년에 이루어졌을 뿐 1984년 신도안 종교촌 폐쇄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4년 폐쇄 직전에 천진교기도원이 있었는데, 천진교기도원은 대궐평의 동남쪽 인근 중봉산 사면의 봉황대(鳳凰

臺)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립지리원, 1996b).

(3) 시천교의 신도안에서의 종교적 정체성 정립

시천교는 계룡산 신도안에 유입하여 종교적 정체성(宗敎的 正體性) 정립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상제교로 개칭하면서 천황봉을 상제봉으로 삼고, 천황봉 아래 용동리·석계리에 교당을 설치했는데, 이와 동시에 천황봉의 정상부에는 천단(天壇)과 산제단(山祭壇)을 설치했다. 천황봉은 계룡산에서 상제봉·상봉의 위상을 갖고 있고, 제자봉(帝子峰)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시천교는 이런 점에 기반하여 천황봉 정상부에 천단과 산제단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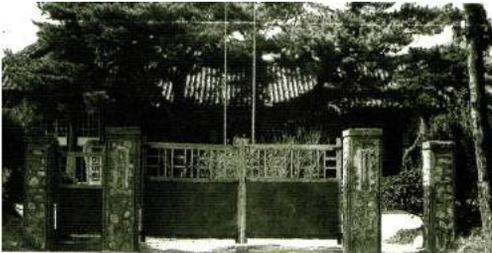
① 상제교주 김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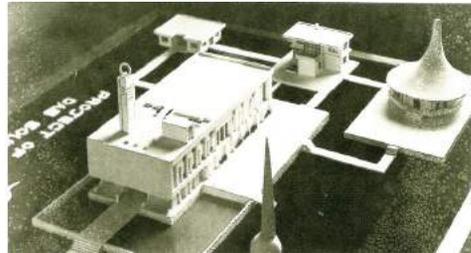
② 신도안 석교리 소재 상제교 본부

그림 20. 상제교의 경관(1930년대)

출처 : ① 村山智順, 1935:附寫眞 16; ② 村山智順, 1935:6.



① 신도안 용동리 소재 천진교 총본부(1960년대 이후)



② 천진교의 건축 설계도(1976년)

그림 21. 천진교의 경관

출처 : ① ②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1.

천단은 동학 3대 교주(상제교 교주)이자 신도안 형성의 주역이었던 김연국이 1941년에 천황봉 정상에 세운 것이고, 산제단은 동학 4대 교주(천진교 교주) 김덕경이 1941년에 세운 것(이길구, 2001b:160)이다. 천단은 천황봉의 천황(天鳳), 즉 천제(天帝)·상제(上帝)에게 제(祭)를 지내는 제단이었고, 산제단은 계룡산신(鷄龍山神)에게 제를 지내는 제단이였다.

요컨대, 신도안 종교촌에 가장 먼저인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에 유입한 시천교는 계룡산 신도안에 유입하면서 천황봉을 상제봉으로 삼고, 교명을 상제교·천진교로 개칭하고, 천황봉의 정상부에 천단과 산제단을 세웠고, 천황봉 아래의 용동리·석계리 일대에 교당 등을 세웠다. 계룡산 천황봉은 상제교·천진교의 종교적 정체성의 원천이면서 성지였다.

2) 시천교 이외의 경관

(1) 시천교 이외 경관의 사례

신도안 종교촌에는 시천교 이외에 수십개에서 100여 개에 이르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들 중 창시시기, 창시자, 교리, 교회시설, 교도, 변천과정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는 단군교(檀君敎), 칠성교(七星敎), 천지대안교(天地大安敎), 천요교(天僣敎), 새일수도원, 우주일주평화국(宇宙一主平和國) 등이 있다. 여기서 이 종교들의 경관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군교

단군교는 1913년 창건되었는데, 단군을 모시며, 스스로를 조국통일 국운주재자(國運主宰者)라고 자임했다. 단군교는 계룡산 소재시 어천절(御天節) 행사를 진행했으며(이길구, 1996:165-167), 신도안 용동리 소재 죽산단군전(竹山檀君殿)(이길구, 1996:165-167)에 단군존영이

모셔져 있었다(이길구, 1996:104). 단군교는 6·20사업으로 1984년에 철거되었다(이길구, 1996:167).

② 칠성교

칠성교는 강원 사람 김달봉(金達鵬: 南道先生, 1902년 사망)의 유언을 믿은 그의 처 일필(一弼), 아들 서봉(瑞鳳) 및 간부 이병규(李秉奎) 등이 1922년부터 두마면 부남리에 자택에 제단을 설치하고 복두칠성을 받들며 기도하여 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1923년 칠성각(七星閣)을 건설하고 1924년 짚으로 북을 만들어 그 안에 안치하면서 창교되었다. 김달봉은 복두칠성을 받들고 성심껏 기도하면 병마, 재액을 면하고 오곡 풍요, 생활의 안온,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짚으로 북(鼓)을 만들어 이를 보물로 간수하면 반드시 개운(開運)할 수 있다고 유언했다. 이후, 이 북이 울면 진인(真人)이 출현하여 신세계가 열린다든가, 혹은 이 북을 간직하는 자는 장래 조선의 주교(主教)로 된다든지 하는 말이 떠돌면서 입교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村山智順, 1935:460-461). 칠성교의 본당은 1920년대에 신도안에 있었다(계룡시, 2005).

③ 천지대안교

천지대안교는 매월선사(每月先師) 부경순(夫景順)이 1952년 부산(釜山)에서 창시했다. 부경순은 물을 신봉하는 수운후천세계(水運後天世界)를 주장했는데, 본래 봉남교(奉南教, 찬물교) 신자였다. 천지대안교는 1956년에 천지인(天地人) 삼합운수(三合運數)와 삼재운수(三災運數)가 열린다며 부산에서 신도안 부남리에 집단으로 이주했다. 천지대안교의 신도들은 대부분 제주도 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흰치마저고리에 부채모양의 모자를 썼다(이길구, 1996:184-189). 교인들은 '선녀(仙女)'와 '선관(仙官)'으로 불렸으며, 주문(呪文)은 "바다해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지하지리 통일통령 물비소시 소원성취"를 찬송했다. 교리는 "자심(自心)으로 깨달음(自覺)"이었으며, 경전으로는 계운전(啓運典)이 있었으며, 운가(運歌)로는 천지평론가, 선양가, 찬양가, 영도가, 계운가 등이 있었다. 1984년 6·20사업으로 인근의 두마면 엄사리로 이전하였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5).

④ 천요교

천요교는 1932년에 황기동(黃紀東)이 창시한 동학계의 신종교이다. 황기동은 본래 계룡산 아래 신도안 용동

리 소재 상제교에 입교하여 주요 간부가 되었으나, 1930년에 상제교 교주 김연국과 포교문제로 불화가 생겨 따르던 신도 100명과 상제교를 탈퇴해서 1932년 신도안 남선리 자택에서 '천요교'라는 이름으로 포교했다. 천요교의 교의(教義)는 동학에 불교를 가미한 것으로 최제우를 교조로 하고, 교조는 성인으로 부처와 다름없는 자라 하여 이를 부처, 즉 요(依)라고 불렀다. 또한, '요' 자를 "일찍 죽다", 즉 요절(夭折)로 해석하고, 요(天)에 사람 인(人)이 붙어 있으므로 "사람이 죽어 부처가 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후, 천요교는 교세가 처음부터 부진하여 곧 소멸되었다(村山智順, 1935:194-195).

⑤ 새일수도원

새일수도원은 1956년에 이유성(李流性)이 부산 영도에서 기도하던 중 계룡산 상봉에 올라가 기도하라는 명을 받고 교주가 되어 창시했다. 이유성은 1958년에 계룡산 상봉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안 부남리 백암동 골짜기에 새일수도원을 설립했다. 새일수도원 명칭에서 '새일'은 예수의 시대는 지나고 새일, 즉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시대가 온다는 뜻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새일수도원의 교리는 반공, 멸공 및 말세복음이다. 새일수도원은 1972년 교주 이유성의 사거 후 교주의 부활을 믿었던 신도들의 내분으로 백마십자군 스롭바벨과, 대한예수교 성결선교회, 광야선구자훈련원, 세계순금등대교회, 새일수도원 말세복음부흥단과 멸공학교 및 한국무의신학교로 분열되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2).

⑥ 우주일주평화국

우주일주평화국(宇宙一主平和國)은 양도천(梁道泉) 목사가 1964년에 "계룡산이 새역사의 중심지"라는 계시를 받고 창시한 하나님의 공회(하나님의 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1969년에 하나님의 공회는 세계일가공회(世界一家公會)로 개칭했고, 1980년에 우주일주평화국으로 개칭했다. 우주일주평화국은 세계일주평화국으로 부르기도 했다. 양목사는 "자신이 정도령이고 미륵이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으며, "새역사의 중심지는 계룡산"이라는 계시를 받고, 계룡산을 시온산에 비하고, 하나님의 공회의 본부는 계룡산 신도안에 두며, 지구공회는 세계만방 도처에 둘 것을 기약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일하라는 신의 섭리를 완수하고자 했다. 우주일주평화국의 교리는 "한님에 돌아가다, 한님의 집을 세운다, 한님 다스

리는 세계를 만든다.”였으며, 교회는 신도안 석계리에 있었다(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3:80; 이길구, 1996:171).

(2) 시천교 이외 경관의 주요 내역

신도안에 입지해 있던 종교들 중 시천교를 제외한 종교들의 경관 특성을 보면, 창시시기, 창시자, 교리, 교회

시설, 교도, 변천과정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창시의 주체·시기가 불분명하고, 창시의 명분·교리가 유사하거나 상이한 가운데 교리, 시설 등이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천교 이외 종교들은 1920년대에서 1984년에 이르는 기간 중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



① 용동리의 단군교 총남지부(1935년)



② 부남리의 칠성교 본부(1935년)



③ 신도안 부남리의 천지대안교 신자들(1952년)



④ 남선리의 천요교 본원(1935년)



⑤ 부남리의 새일수도원 대강당(1974년)



⑥ 석계리의 우주일주평화국 교회(1984년 이전)

그림 22. 시천교 이외의 종교 경관

출처 : ① 村山智順, 1935:13; ② 村山智順, 1935:11; ③ 이길구, 1996:188; ④ 村山智順, 1935:附寫眞 8; ⑤ 이길구, 1996:173; ⑥ 이길구, 1996:171.

* ⑥ 시온산은 계룡산을 의미함.

존속 및 철거의 과정을 겪었다.

신도안 종교촌에 입지해 있던 시천교를 비롯한 종교들은 주기적으로 종교간 간담회, 친목대회 등을 갖고 상대 교단의 교리를 인정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으로도 이루어졌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세계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 “세계는 한집이요 인류는 한가족이다”, “진리는 하나요”, “하나의 세계 건설” 등과 같은 구호를 표방하면서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3; 이길구, 1996:207).

3) 무속 경관

신도안 종교촌에는 시천교 등의 여러 신흥종교들 이외에도 무속이 곳곳에 입지해 있었는데, 무속은 신도안 종교촌 일대를 중심으로 계룡산 전반에 입지해 있었다. 계룡산의 무속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선거리 무당들이 계룡산 일대로 피난을 내려와 ‘굿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후반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집집에서 종교행위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굿청’이 미신(迷信)으로 간주되어 계룡산 일대로 쫓겨 들어오면서 굿당 형태로 대규모로 확산되었다(구중희, 2001:271).

계룡산은 과거 전국의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었으며(이길구, 1997:67; 2001a:145), 무속인들은 특히,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솥용추·암용추 등을 특히 신성시 했는데, 그 이유는 천황봉의 경우 산신제단이 있

고, 무속인들이 천신이 강림하는 곳으로 믿고 있고, 삼불봉, 연천봉 등의 계룡산 전역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 삼불봉의 경우 무속신앙의 대상인 삼불(三佛) 또는 삼신(三神)같은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연천봉의 경우 계룡산 최고 영봉인 천황봉을 가까이에서 올려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용추·솥용추의 경우 무속신앙에서 추구하는 남녀성기를 신앙대상으로 하는 원시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굿당들은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등의 산봉 일대와 그 아래의 신원사계곡, 연애골, 신도안계곡, 갑사계곡, 동학사계곡, 하신계곡 등의 계곡과 솥용추·암용추 부근에 집중되어 있었다(류제현, 2002:66-71).

1975년 종교정화운동 이전에는 100개 이상의 무속신앙의 굿당들이 가옥, 토굴, 석굴, 천막 형태로 고유한 명칭도 없이 계룡산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류제현, 2002:70). 한때, 신도안 일대에는 전국에서 1백여 명의 무속인이 몰려와 계룡산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계룡산 일대에는 100여 개소가 넘는 굿당이 있었으며, 신도안은 개혁형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메카였다(이길구, 1996:94). 이에 따라,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 곳곳에는 자연물이나 산신에 제례를 드리는 무속인들이 많았으며, 음사(淫祀)하는 무속인도 있었다. 이는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계룡산 일대의 무속이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정화사업의 대상이 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75년 종교정화운동 이후 계룡산 일대의 무속굿당은



① 신도안에서의 무속제례의식(1970년대)



② 양화리의 무속굿당(2019년)

그림 23. 신도안 내외의 무속

출처 : ① 이길구, 1996:65; ② 2019년 필자 촬영.

* ① 바위에 무속에서 섬기는 신(神)이 부조(浮彫)되어 있음. ② 무속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오색(五色)의 '천'이 굿당 입구에 장식되어 있음.

그 이전의 100개 이상에서 39개 정도로 줄었고, 사찰 주변에서 증가 상태로 잔존했다(류제현, 2002:70). 1984년 6·20사업으로 인한 신도안 종교촌 폐쇄 이후 신도안 종교촌 일대에 있던 무속굿당들은 신도안 원근으로 이전했는데(이길구, 1996:94), 주로 신도안 종교촌 인근, 즉 신도안 종교촌 배후의 천황봉 너머 반대편에 해당되는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하대리(陽化里·下大里) 일대, 즉 천황봉, 연천봉, 관음봉, 삼불봉 및 수정봉 직하 기슭의 감사·신원사 간 691번 도로 상의 보목고개로 연변에 집중되었다. 특히, 삼불봉 직하 기슭의 양화리 삼거리 일대에는 가장 많은 수의 굿당들이 집중되었다.

IV. 요약, 결론 및 제언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은 종교적·역사적·장소적 특성을 현저하게 가졌었고, 다종교촌이었으므로 한국의 종교촌에서 존재 의의가 특이했고 컸다. 현재, 신도안 종교촌은 소멸되어버린 상황이고, 선행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주요 연구결과의 상이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종교구성, 내부구조, 경관 등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부구조 및 경관을 원형 복원의 차원에서 파악했고, 경관 특성과 관련된 제언을 했다.

1.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특성

여러 축척의 지도 자료를 통해서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시기별로 조사했는데,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8년 「5만분의 1 지형도」는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시기로 추정되는 1903~1904년경 또는 1912년을 약간 경과하여 제작된 것이다. 지도에는 ‘신도안’의 한자 표기가 ‘新都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도안 지명이 표기된 일대의 여러 마을들을 합쳐서 ‘신도안’이라는 상위의 마을로 호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에는 1910년대의 신도안 종교촌의 산지, 하천, 평야 등의 지형, 토지이용, 신도안의 한자 지명, 군·면·리 행정구역 경계 및 명칭, 마을의 위치 및 명칭, 종교의 위치 및 명칭 등이

나타나고 있다. 1918년 당시 신도안 종교촌이 행정구역 상으로 논산군 두마면의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등의 법정리 및 대전군 진잠면의 남선리 등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남리, 석계리 및 용동리 일대(1970년대 마을 지명으로 대궐평, 종로터 및 상원 일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지도에는 신도안 종교촌에 최초로 입지한 종교인 시천교의 두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도는 신도안 종교촌이 1914년 개편된 근대적 행정구역에 속한 상태와 1910년대 신도안 종교촌의 초기 발생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1977년 1:50,000 지형도에는 신도안 종교촌 전성기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지도에는 1918년 당시 형성된 당시 신도안 종교촌이 행정구역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918년에 비해서 마을 수도 대폭 증가되어 있지만, 대궐평, 종로터, 석계, 금계동, 백암동, 원부남 및 상원 일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에는 1918년과 달리 학교와 같은 일반기능체 및 저수지, 다리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실제로는 최대 120여 개 이르지만, 9개만 표시되어 있다.

셋째, 1984년 폐쇄 직전 1:5,000 지형도는 1984년 6·20 사업에 의한 폐쇄 직전의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를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지도에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매우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도의 좌측에는 신도안 종교촌의 핵심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궐평, 신도내시장, 신도내출장소, 신도내우체국, 협동도정공장 및 종로터로 이어지는 일대가 그곳이다. 다리 같은 기반시설 이외에 관공서, 학교, 회관, 시장, 도정공장, 양계장 축사, 창고 등 다양한 일반기능체가 다수 나타나고 있고, 종교도 25개나 나타나고 있다.

넷째, 1986년 1:25,000 지형도는 1984년 신도안 종교촌 폐쇄 직후에 제작된 것이다. 지도에 신도안 종교촌의 기본적인 자연 및 인문지리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984년에 6·20사업으로 철거된 마을, 일반기능체 및 종교 중 일부의 형태와 대부분의 명칭은 삭제되지 않고 기존대로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 지형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다소 혼란스럽고 변칙적인 것이다.

1920~1980년대의 그림 자료에서도 신도안 종교촌 내부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형으로는 신도안 종교촌의 배후산지가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신도안 종교촌의 상봉으로서 신도안 종교촌의 제1 발생원인 천황봉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신도안분지 내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핵심부 입지에 영향을 끼친 중봉, 인경봉, 신타이봉 등의 산봉과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하천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지명으로는 신도안 종교촌이 속했던 과거 논산군 두마면의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 정장리 등과 대덕군 진잠면의 남선리 등의 법정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법정리에 속한 행정리로서의 마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궐터, 원부남, 백암동, 종로터, 금계동, 상원, 정장, 벌뜸, 작산, 석계 등이 그것들이다.

기반시설로는 용동저수지 등의 저수지, 종로통 등의 도로, 신도교 등의 다리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기능체로는 신도초등학교, 계명중학교 등의 학교, 신도내출장소, 신도내우체국 등의 관공서를 비롯해서 시장, 회관, 공동축사농장, 농협창고, 약국·병원, 사무소, 식료품점, 정미소, 음료식점, 의류점, 숙박시설, 잡화상, 다방·제과점, 문구·서점, 이·미용 및 기계류판매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로는 불교, 유교, 선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다양한 계통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자 및 조사 시기에 따라 그 수가 매우 상이하여 1983년의 4개에서부터 1964년의 58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대체로 신도안 주요부인 부남리 일대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별적 위치를 상세히 표시한 경우도 있다. 토지이용으로는 논, 밭 및 대지와 같은 주요한 토지이용을 비롯해서 주요한 산, 과수원, 가옥(건물), 집의 빈터, 분묘군, 상전 등이 나타나고 있다.

2. 신도안 종교촌의 경관 특성

신도안 종교촌의 일반경관에서는 신도안 종교촌이 입지해 있었던 일반촌락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기반과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기반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일반경관 중 전체경관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도안 종교촌에서는 일반촌락이 하천 연변의 평야지대에서 고촌 형태의 집촌을, 그리고 배후산지 사면에서 소촌고립가옥 형태의 산촌을 각각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반촌락에는 논·밭·

산림과 같은 토지이용, 저수지·우물과 같은 용수원, 관공서·마을회관 및 교육기관과 같은 공공시설, 종로통과 같은 상설상가와 신도내장터와 같은 정기시장, 도정공장·엿공장 같은 공장, 철도· 시내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등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장소에 입지해 있었고, 종교적 기능체들이 소규모 군집이나 고립적 형태로 입지해 있었다. 따라서, 신도안 종교촌의 촌락형태는 전체적으로 일반촌락에 종교촌이 중첩되어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안 종교촌에 일반촌락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산지, 하천 및 평야를 기반으로 형성된 일반촌락의 농업·공업·상업·교통·교육적 기능에 의해 신도안 종교촌이 작용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경관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시천교, 시천교 이외 종교 및 무속 간의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의 차이,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적극적 수용,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고유성 유지 및 공존 등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천교, 시천교 이외 종교 및 무속 간의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의 차이이다. 시천교는 동학 기반의 종교적 정통성을 갖고 신도안 종교촌에 최초 유입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존의 충실한 교리, 대규모 신도 등을 기반으로 계룡산 및 신도안의 장소적 상징성으로서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규모 종교시설들을 갖추어 신도안 종교촌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우위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천교가 신도안 종교촌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 우위성을 유지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 3대 교주이자 전국적으로 50여 만의 신도를 가진 시천교의 교주인 김연국이 주요 지도자들과 더불어 서울을 비롯해서 황해도, 평안도 등지 출신 수천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신도안에 유입하면서 서울에 있던 시천교 본부도 함께 이전해 온 점(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70, 이길구, 2001a:160-161;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375), 시천교가 신도안 유입 후, 빠르게 기성정통종교의 수준과 규모에 버금가는 본부, 교당(본당), 속실, 전교실, 기도원, 학교, 교주별장 등을 건립하여 정통의 거대 신흥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춘 점(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343-344),

시천교가 본부, 교당 등 종교시설들을 천황봉, 즉 상제봉 아래의 계룡산 및 신도안 최고의 풍수지리·풍수도참적 핵심처인 대곶터, 중봉(봉황대), 금계동 일대에 입지시켰다는 점(朝鮮總督府, 1918: 국립지리원, 1996b; 이길구, 1996: 뒷표지 안부록;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정중수, 2008:298), 시천교가 신도안 유입 후 계룡산 상봉인 천황봉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지칭한 상제봉의 명칭을 따서 교명을 시천교에서 상제교로 개칭한 점(이길구, 1996:111; 1997:113;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 시천교가 상제봉의 정상부에 천단과 산제단을 세워서(이길구, 2001b:158, 160) 계룡산 및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상징체제의 핵심적 요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동학이라는 종교적 기반에 계룡산과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상징체제를 더한 점.

이에 비해, 신도안 종교촌의 시천교 이외 종교들은 신흥종교가 태생적으로 갖는 군소영세성 및 종교적 정통성·권위성의 결핍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유사성(類似性)·사이비성(似而非性)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시천교 이외 종교들의 정통성·권위성의 결핍 및 유사성·사이비성은 “신도안 유사종교의 종파는 교리와 교단을 막론하고 유명무실한 것이 많아서, 산속에 혹은 실내에 제단을 모아 놓고 있으며, 하나의 종교로 행세하는 것이 많았다”(이경호, 1964:28-29)는 언급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도안 종교촌의 시천교를 포함한 종교들의 성격을 민속종교(民俗宗教)(최진아, 2018), 신앙업자(信仰業者)(村山智順, 1931: 850), 미신(善生永助, 1933: 253-257), 사기꾼집단·인격파탄자집단(조동길, 2004) 등으로 극단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시천교를 포함한 종교들을 일반적 종교로 간주하지 않음은 물론 유사종교·신흥종교로도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무속도 태생적 본질인 원시정령신앙적 속성으로 인해 산봉·계곡·수변 입지, 오방기(五方旗)·천황기(天皇旗)·서낭기(城皇旗) 등의 사마니즘적 경관 등에서 다른 종교들과 상이한 고유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유사성·사이비성은 물론 미신(迷信), 사교(邪教) 및 음사로까지 매도되는 상태였다.

둘째,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적극적 수용이다. 신도안 종교촌의 종교경관에서 신흥종교들은 종교촌 차원에서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도안 종교촌을 구성하는 신흥종교들은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을 조

급도 거부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을 수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항은 무속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무속은 시천교 등의 신흥종교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고유의 정령신앙원시신앙의 특성을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에 전적으로 통합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안 종교촌에 입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기독교 계통의 소수의 정통종교들도 신흥종교나 무속 정도는 아니지만,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 신도안 종교촌에서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적극적 수용 및 소수의 정통종교들의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의 어느 정도의 수용은 1920년대 이래 최근까지의 여러 선행연구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차후 새로운 연구자의 관점,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에 따라서 전적으로 부정되거나 부분적 타당성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즉, 신도안 종교촌에서 신흥종교 및 무속의 발생 주요인이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 및 풍수도참 특성이 전혀 아니거나 부분적 관여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신흥종교 및 무속의 고유성 유지 및 공존이다. 시천교를 비롯한 다양한 신흥종교들은 신도안의 풍수지리적 및 풍수도참적 특성과 결합된 그들의 교리, 사상 등에 의거한 종교적 지향성(宗教的 指向性)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기도시설, 상징조형물, 교육시설 및 거주시설에서 종교적 고유성(宗教的 固有性)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신흥종교들은 신도안분지의 내부 평지 또는 외곽 산지사면 중 어디에 입지하더라도 종교적 지향성에 기인한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항은 차원은 달랐지만 무속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들 간에, 그리고 신흥종교와 무속 간에 종교적 고유성의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상호간에 배척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없이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흥종교 간은 물론 신흥종교와 무속 간에도 장소 입지, 고유성 경관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배척이나 갈등 없이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연하면, 신도안 종교촌에서 동학을 기반으로 교리,

신도, 시설 등 여러 면에서 탁월한 거대·정통 신흥종교인 시천교는, 교리, 신도, 시설 등 여러 면에서 탁월하지 못한 신생의 군소신흥종교들을 배척하지 않고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신도안 종교촌의 시천교를 비롯한 신흥종교들은 같은 곳에 어우러져 있는 무속의 원시정령신앙적 속성에 기인한 외부적 유사성·사이비성·미신성·사교성·음사성으로 인해서 자신들까지 비종교·유사종교·사교의 범주에 포함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래 조선총독부가 통치상의 필요에서 신흥민족종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경우도 무속의 사교성을 신흥종교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한 바 있고, 해방 이후 1970년대에 행정 및 경찰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서 전개한 사회자연정화사업의 과정에서 무속의 사교성을 단속하면서 40여 개의 군소신생 신흥종교들에게도 사교성을 덧씌워서 함께 단속했고, 심지어는 계룡산 내지는 신도안에서 추방까지 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신도안 종교촌의 거대정통 신흥종교, 군소영세 신흥종교 및 무속 3자간에 상호간의 갈등이나 배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공존을 위해 여러 가지 상호협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안 종교촌에서 거대정통 신흥종교, 군소영세 신흥종교 및 무속 3자간의 고유성 유지 및 공존 양상과 관련하여, “신도안은 여러 종교가 혼재(混在, affiliation)하여 촌락을 형성했다”(신중성, 1985:127)는 언급은 매우 적절하다. 이외에, 신도안 종교촌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교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적 종교촌을 이루었다는 의미의 종교집성촌(宗教集成村)”(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343-348)으로, “유사종교의 총본산으로 보기도 문 전통적 종교박물관”(신중성, 1984:326)으로 규정한 것 역시 적절하다. 요컨대, 신도안 종교촌의 신흥종교와 무속은 혼재하면서 개별종교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상호간에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

넷째, 일반경관과 종교경관의 혼재·공존이다. 신도안 종교촌에서는 일반취락으로서의 신도안에 나타나는 일반경관과 종교촌으로서의 신도안에 나타나는 종교경관이 혼재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도안 종교촌에서 일반경관과 종교경관은 섞여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註

- 1) 「근대한국오만지일지형도」(朝鮮總督府, 1918년)는 본래 1914~1918년의 5년간에 걸쳐 제작되었는데(양태진, 1982), 이 지도첩의 일부인 논산대전 도폭의 제작년도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 지도첩의 최종 완성년도인 1918을 제작년도로 표기했다. 이 지도첩은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가 1982년에 복간(復刊)한 것이다.
- 2) 이는 시천교(금파)의 황해도 출신교도 30호가 1903~1904년경에 신도내로 이주했다(李覺鍾, 1924:126)는 기록과 시천교가 1912년 4월 5일 서울에서 신도안으로 이주해 온 것이 신도안 종교촌 발생의 첫 계기가 되었다(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384)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 3) “김연국이 상제의 명을 받았다는 명분”과 관련하여 “1924년 8월 김구암이 이양산 천수산에서 수도할 때 상제의 영에 접하여 도를 전하는 홍서를 받았다 하여 명칭을 상제교로 바꾸었다”라는 기록(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9:344)이 있다. 또한, “상제교로 개칭하면서 상제봉 아래 용동리에 자리 잡아 교당을 설치하고 교세를 확장하고자 했다”는 연유로 김연국을 상제교주(上帝教主)로 칭하기도 한다(村山智順, 1935:附寫眞).
- 4) 본 연구자는 지역정체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최원희, 2016; 2017)에서 특정 지역의 입지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 형성에도 그 지역의 풍수지리적 특성이 일단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 5) 신도안 종교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고유성이 상이한 신흥종교 간 공존성’ 및 ‘고유성이 상이한 신흥종교와 무속 간의 공존성’은 일종의 ‘종교적 혼성성(宗教的 混成性, religious hybridity)’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종교가 뒤섞여서 종교적으로 다중적 정체성(多重的 正體性)을 가진 종교촌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문화지리학에서 ‘혼성성’은 “유기적으로 혼성적인 것들은 이질적 기원 요소들의 물리적 혼적을 내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뚜렷한 통일체로 부상한다. 확연히 새롭고 상이한 어떤 것이 형성되면서도 그 내부에는 원천적 자취들이 종종 모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종교적 혼성화 과정은 종교적

혼합을 의미하는 혼합화(syncret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영민 등 역, 2011: 343-344). 다종교촌인 신도안 종교촌에서 ‘종교적 혼성성’이 나타났던 곳으로 추정되나, 이와 일부 다른 견해도 있는데, “계룡산에는 상이한 종교(또는 이념) 집단들이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이용해 온 공간과 장소들이 있다. 불교와 유교 그리고 무속을 포함하는 민간 신앙들은 자기 고유의 영역과 정체성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각기 다른 이념(또는 세력)을 구현하여 왔다. 무속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지리는 계룡산 전역에 걸쳐 불연속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저항의 지리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지점은 삼불봉, 암용추, 솟용추 등이다. 지금까지 무속과 불교의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뒤엉킴을 통하여 피 지배 세력인 무속이 생존하여 왔던 것이다”라는 견해(Ryu, 2005:553)가 그것이다.

참고문헌

계룡면지편찬위원회, 2006, 「계룡면지」.
 계룡시, 200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4년사」.
 공주시·공주학연구원, 2015, 「공주학강좌」.
 구중희, 2001, 「계룡산 굿당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국립공주박물관, 2007, 「2007 특별기획전 계룡산」.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2018,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
 공원 문화자원」. 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
 김덕중, 1984, 「계룡산 신도내의 종교(신앙) 실태 조사: 1981~
 1984년」, 계명중학교 향토조사반(미출간 자료).
 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94, 「논산군지」.
 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논산시지: 4권 민속과 현대문화」.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 「두마면지」.
 류제현, 2002, 「한국문화지리」, 서울: 살림출판사.
 신중성, 1984, 「덕소 신앙촌의 형성과 가옥구조」 지리학연구,
 9, 325-340.
 신중성, 1985, 「동부 선린촌의 형성과 특성」 응용지리, 8,
 107-126.
 양태진, 1982, 「한국 지형도의 복간에 즈음하여」 경인문화사
 편 「근세한국오민분지일지형도」, 서울: 경인문화사, 서문.

윤용혁, 2009, 「충청 역사문화 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이경호, 1964, 「계룡산 신도안과 유사종교」, 공주: 공주사범
 대학.
 이길구, 1996, 「계룡산」, 대전: 대문사.
 이길구, 1997, 「계룡산: 신도안돌로서 금정을 덮었는데」, 대
 전: 대문사.
 이길구, 2001a, 「계룡산맥은 있다」, 대전: 누리문화사.
 이길구, 2001b, 「방백마각 구흑화생」, 대전: 누리문화사.
 이길구, 2008, 「신흥종교의 중심 신도안」 두마면지편찬위원
 회, 「두마면지」, 375-417.
 이길구, 2009, 「계룡비기」, 대전: 월드자인.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2011, 「현대문화
 지리학: 주요 개념의 비판적 이해」, 서울: 논형.
 이영숙, 2000, 「계룡산 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성격」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흥직 편, 2009, 「(증보) 새국사사전」, 서울: 교학사.
 임택순, 1990, 「문화지리학: 문화와 지리와의 관계」, 서울: 법
 문사.
 장철수, 1976a, 「신앙촌락의 구성과 인간관계: 계룡산 신도안
 의 한 촌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철수, 1976b, 「신앙촌락의 구성과 인간관계: 계룡산 신도
 안의 한 촌락을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2, 99-162.
 정중수, 2008, 「풍수지리로 보는 계룡과 두마」 두마면지편찬
 위원회, 「두마면지」, 284-322.
 정중수·서현강, 2003, 「계룡산」, 서울: 대원사.
 조동길, 2004, 「1920년대의 계룡산 (4): 「계룡산기」의 내용과
 의미」 웅진문화, 17, 32-56.
 주경식, 1984,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 지리학, 29,
 72-88.
 최원희, 2016,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
 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5(2), 155-180.
 최원희,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최원희·이근화, 2019,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과 종교
 구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2), 235-259.
 최원희·이근화·성정락, 2018,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산지풍수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지리학회지, 7(3),
 337-362.
 최진아, 2018, 「계룡산 삼신당」 금강문화유산연구원 편, 「이
 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공주: 국립

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79-92.
 최창조, 1984 “계룡산 정기는 아직도 살아 있다” 마당, 29, 108-111.
 충청남도, 1994, 「계룡산지」.
 충청남도, 1997, 「충남개도 100년사」 하권.
 충청남도, 1999, 「사진으로 본 충남 100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2, 「계룡소고」(3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 「신도고사」(재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계룡의 어제와 오늘」.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a, 「충청남도지: 16 전통사상」.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b, 「충청남도지: 22 현대종교와 신앙」.
 한홍수, 1993, 「충청의 재발견 I: 계룡산」, 대전 한민출판사.
 善生永助, 1933, 「朝鮮의聚落 前篇」, 朝鮮總督府.
 李覺鍾, 1924, “朝鮮の迷信と鷄龍山,” 朝鮮, 8, 116-137.
 村山智順, 1931, 「(民間信仰 第二部) 朝鮮の風水」, 京城 朝鮮總督府.
 村山智順, 1935, 「(調査資料 第42輯)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국립지리원, 1977,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국립지리원, 1979, 「1:50,000 지형도: 대전 도폭」.
 국립지리원, 1981,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국립지리원, 1986,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국립지리원, 1996a, 「1:5,000 지형도: 공주 079 도폭」.
 국립지리원, 1996b, 「1:5,000 지형도: 공주 080 도폭」.

국립지리원, 1996c, 「1:5,000 지형도: 대전 071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18,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大田·論山 圖幅.
 Ryu, J.H., 2005, Kyeryong mountain as a contested plac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553-57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main>
 교신 : 최원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wh@kongju.ac.kr)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h@kongju.ac.kr)

투 고 일: 2019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6일
 투고확정일: 2019년 8월 13일

